

여유자금의 위험관리 등 중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7.(월) 매일경제, 고용·산재기금 수익률 널뛰기 ... 건전성 '빨간불'
9.6.(일) 한국경제(온라인), 7월 폭락장에 줄줄이 직격탄...한달 새 '2.8조' 증발한 4대 기금

- 4대 기금의 6월 말 운용규모 총 45조 870억원에 각 기금의 7월 수익률을 단순 적용하면 한 달 동안 약 2조 8,000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.
- '4대 기금 운영 현황'에 따르면 산재보험기금의 운용규모는 6월 말 32조 8,985억원에서 7월 말 30조 2,403억원으로 감소했다.
-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치료와 생계 지원에 필요한 요양급여·휴업급여·장애급여·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이다.
- 고용보험·산재보험·장애인고용·임금채권보장 등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대 기금이 위험 자산으로 쏠림과 주력 자산의 변동성이 커짐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.
- '4대 기금 수익률 현황'에 따르면, 최근 4대 기금의 운용 성과는 주식시장 변동성에 극심하게 휘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중장기적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목표 자산배분 비중 등 위험 관리를 지속하고 있음
 - 금년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역대급 상승률(101%)을 기록하였으며, 이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여 운용하는 기금의 주식 평가액도 증가하였음

○ 주식 등 시장 변동에 맞춰 자산배분 비중을 관리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금융시장 상황을 일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음

□ 국내 증시가 급락한 7월에는 여유자금에서 운용 중인 주식 평가액도 일시적 감소가 불가피하였음

○ 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는 만큼 특정 짧은 기간의 평가만으로 운용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

* 8월말 기준 기금별 주식 운용성과: 고용 71.3%, 산재 69.8%, 장고 67.0%, 임채 66.3%

○ 기사에서 언급된 약 2조 8천억원은 금융시장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추정치로, 자산 매도 등 확정된 투자 손실과는 구분할 필요

□ 한편, 금년 8월말까지 운용성과는 최근 5년간 평균 운용성과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, 기금 건전성을 최근 5년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전년도 운용성과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

< 4대기금 시점별 수익률 비교 >

시점별 수익률	고용기금	산재기금	장고기금	임채기금
현재('26. 1~8월)	6.32%	11.09%	10.44%	2.97%
5년 평균	5.80%	9.15%	9.65%	4.53%
전년도(25년)	10.01%	16.65%	18.59%	6.07%

○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시장 환경에서 채권 등 다른 자산군 수익률이 부진했던 점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

*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 금리 상승으로 장기물 중심 채권 성과 약세

□ 실업급여 지급 및 산재보상 등 국민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, 최근 금융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여유자금 운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	책임자	과 장	이준호 (044-202-7384)
		담당자	사무관	오진욱 (044-202-7386)